사람의 향기, 덕향

현불논단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화엄경〉 '십무진장품'에서는 열 가지 다함 없는 창고에 대해 설하고 있다. 열 가지 창고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는 신장(信藏), 계율을 실천하는 계장(戒藏),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아는 참장(慚藏), 남에 대해 창피함을 아는 괴장(愧藏),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듣고 배우는 문장(聞藏), 나눔의 보시를 실천하는 시장(施藏), 다함 없는 지혜를 갖춘 혜장(慧藏), 바른 생각을 갖춘 염장(念藏), 가르침을 들어 지니는 지장(持藏), 그리고 설법 능력의 변재를 갖춘 변장(辯藏) 등이 있다.

대승보살이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열 가지 다함 없는 창고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일곱 가지 성스러운 재산, 칠성재(七聖財)로 설해지고 있다. 수행승이 갖춰야 할 일곱 가지 정신적 재산은 믿음의 재산, 계행의 재산,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그리고 지혜의 재산 등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다시 〈앙굿따라니까야〉의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 있는 세 가지 향기로 축약된다. 나눔의 향기인 시향(施香), 지킴의 향기인 계향(戒香), 배움의 향기인 문향(聞香)이다. 이러한 향기는 바람을 타고도 퍼지고 바람이 없어도 퍼지며 바람을 거슬러서도 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삼재팔난 시 대승보살 역할 중요
자신과 남을 풍요롭게 하는 덕향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 확산되길

부처님 재세 시의 설법에서 비롯돼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화엄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은 나눌 줄 알고 지킬 줄 알며 배울 줄 아는 사람의 향기이고,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덕향(德香)'이라 할 수 있다. 덕향은 자신과 남을 더 풍요롭게 하는 성스러운 재산으로 확대되고, 이를 갖춘 대승보살들이 중생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니고, 나아가 이를 여법하게 설하는 설득능력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가 변혁기의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의 등장과 환율, 무역 문제의 심화 등 사회변화를 촉발하는 요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혁기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들겠지만, 특히 스스로를 지켜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고통이 심화될 때 종교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진다. 사회가 안정돼 있을 때는 조용한 곳에서 개인적 수행이 가능하지만 사회가 혼란스럽고 삼재팔난이 횡행할 때는 희망과 행복을 나눠 주는 대승보살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사회 격변기에 종교지형이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그 시대에 바람직한 종교적 역할을 누가 얼마나 많이 실천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우울, 분노, 불안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정신적 의지처가 돼 주고 숨통을 열어 주며 함께 고락을 같이해 주는 종교단체가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출재가 대승보살들의 덕향이 온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인공지능 시대의 침묵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인공지능(AI)이 일상의 거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시대, '침묵'은 사라지는 감각처럼 보인다. 우리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뉴스와 정보에 반응하고, 대화형 인공지능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입을 다물면 존재가 지워지는 듯한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사회과학 연구들은 오히려 침묵이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권력을 드러내며 공동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실천 행위임을 밝혀 주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공간에서는 특정 의견이 알고리즘에 의해 반복 노출되면서 그것이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한 다수 의견처럼 보인다. 이는 독일의 커뮤니케이션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이 1970년대 제시한 '침묵의 나선' 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여론 형성 과정에서 특정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소수 의견을 말하면 배척당할 것이라고 느끼고, 이를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다원적 무지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즉 우리는 실제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다수가 특정 의견을 지지한다고 잘못 인식하게 된다. 알고리즘은 이 과정을 더욱 부추겨, 특정 의견만을 재노출하며 우리의 인식 지평을 좁혀 버린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여론

침묵, 지배 구조 불협조·저항 전략
묵언, 자기성찰·관계 회복의 기술
침묵과 묵언 다시 배워야 할 시점

에 휘둘리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3자 효과'까지 결합하면서 사회는 더욱 왜곡되고, 사람들의 행동은 점점 조심스러워져 자신의 침묵을 정당화하기 쉬워진다.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의 노출 구조,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다원적 무지와 제3자 효과가 서로 얽혀 침묵을 확대하고 여론을 기울게 만드는 디지털 나선 구조를 형성한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가 결코 무지나 무관심이 아니라, AI 기반 공론장이 만들어 내는 심리적·사회적·기술적 압력 속에서 침묵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침묵은 단순히 사회적 압력의 결과만은 아니다. 의식적으로 선택된 침묵은 오히려 저항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류학자 제임스 C. 스콧은 약자 집단이 공개적 반발 대신 은밀한 저항을 한다고 설명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배 구조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침묵은 일종의 전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묵언(默言) 역시 이러한 능동적 침묵과 맞닿아 있다. 묵언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면의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한 수양이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여백'의 확보라고 설명한다. 말의 부재를 통해 뇌가 정보 과부하에서 벗어나고 감정적 반응이 조절되며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회복된다. 즉 묵언은 자기성찰만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기술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언어를 학습하고 플랫폼이 우리의 반응을 설계하는 시대에 침묵은 퇴보가 아니라 성찰을 위한 전략적 공간이며, 정보 과잉 속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종의 지혜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소음의 시대를 건너면서 침묵과 묵언이라는 오래된 실천을 다시 배워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社 說

생명이 최우선인 사회를 향한 '경계의 목탁'

지난 10년 동안 하루 여섯 명이 일터에서 귀가하지 못했다는 비극적인 통계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이러한 비극을 더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선언이 조계종이 1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였다.

이날 법석은 희생된 모든 이의 이름을 다시 불러 기억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불교계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한국 노동자뿐 아니라 스리랑카·네팔·미얀마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 50여 명의 위패가 함께 모셔진 사실은, 우리 사회가 누구의 노동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다. 산재는 국적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회의 약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온다는 현실을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시대적 고통 외면 않는 자비 실천
국가 책임 강조·실질적 대책 촉구
추모 넘어선 실천, 시대적 책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불교가 시대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나아가 "이주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자비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산재 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사회 안에서 실천하는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불교계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종교가 사회적 고통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보여 준 무거운 메시지다.

위령재가 지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국정 책임자가 응답했다는 점이다. 위령재에 앞서 유가족들을 만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일하다 희생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산재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나 사업장의 과실로만 축소해 온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으로 읽힌다. 유가족들의 간담회 요청에 "직접 듣고 해결할 길을 찾겠다"고 약속한 점도 주목된다.

이번 위령재가 유족들에게는 치유의 한 걸음이었다면, 우리 사회에는 '경계의 목탁'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동안 유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그들의 슬픔은 곧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아픔이자 과제임을 일깨웠다. 유족 대표는 발원문에서 "말이 아닌 실질적인 산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더 이상 미뤄 둘 수 없는, 정부·국회·기업·시민사회가 함께 응답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불교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보고, 고통받는 존재 앞에 먼저 다가가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가르침을 강조한다. 조계종이 산재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행보는 한국 종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제 과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생명 존중을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세우고, 산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변화에 실질적으로 나서는 일이다.

거듭되는 희생 앞에서 추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어야 한다. 이번 위령재가 남긴 울림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국가와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1월 26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1월 2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1월 2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1월 2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